

교회가 숫적성장을 추구해야 할 성경적 근거와 적용

현 유 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숫적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 글은 먼저 교회에 있어서 질적성장과 숫적(양적)성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숫적성장을 추구해야만 할 근거를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사역, 곧 질적성장의 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에 있어서 그의 제자훈련이 그의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양적성장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1990년

* 연세대학교(B.A.), 고려신학대학원(M.Div.),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M.C.E.), 미국 위튼대학대학원(M.A.), 미국 북일리노이 대학교(Ed.D.)

을 고비로 질적성장에 대한 회의와 숫적성장의 둔화라고 하는 전환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며 지혜를 얻어 현실에 적용하므로,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1. 교회의 질적성장과 숫적성장의 관계

1) 교회의 질적성장과 숫적성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양적성장이란 질적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양적성장을 하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즉 질적성장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교인들의 질적성장이 있는 교회는 그들이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므로 개인적으로 전도하며, 사회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하므로 숫적성장이 있어야만 한다.

인구가 폭증하는 신도시를 예로 들어 보자.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는 숫적성장을 일차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연예인 간증집회나 찬양집회, 부흥회, 강연회 등의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회가 이러한 소위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때 많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이런 방법들이 계속 효과적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1980년대에는 효과가 많이 있었다).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므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얼마동안 머무르게 하여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예를 들면 새가족 성경공부, 일대 일 성경공부, 제자훈련 같은-을 착실히 시행하므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 때에 그 교회는 얼마있지 않아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양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가르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되는 가운데 더 큰 숫적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숫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비판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농(離農)현상이 두드러진 농촌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교회는 일차적으로 교인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전(全)주민이 기독교인화(化)되지 않는 이상, 또한 전세계가 복음화되지 않는 이상, 질적성장이 양적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를 교회성장 학자들의 용어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숫적성장에는 한 교회의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팽창성장(Expansion Church Growth)과 이웃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확장성장(Exte-

nsion Church Growth). 그리고 문화권이 다른 선교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가교성장(Bridging Church Growth)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만 두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와 회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마땅히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 평가없이 성장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평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의 질을 평가할 때에 어떤 재료를 썼으며, 어떤 영양소와 얼마만한 열량을 가졌으며, 맛이 어떠한가, 그 음식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요소 중 어떤 것은 계량화(計量化)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이 방면의 전문가의 견해를 의존할 수 있다. 마치 포도주의 질을 평가할 때에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감식가(connoisseur)의 주관적인 견해를 존중하듯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어트 아이스너(Elliot Eisner)의 「교육을 위한 상상」(Educational Imagination)을 참고하라) 교회의 평가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소양과 목회의 경험을 가진 덕망이 있는 사람이 주관적인 질적성장을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도 결국 계량화되어질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적성장은 양적성장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와그너(C. Peter Wagner)는 이렇게 말한다(「목회와 신학」, 1990, 2월호, 79).

교회 성장론자들도 교회성장에 있어서 질을 반대하고 양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여기며 그들 중의 누구도 수준있는 (high-quality) 교회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교회의 수준(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척도가 사용되곤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양과 무관한 것은 없다. 기령,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 헌금하는 사람들의 비율, 문화 위임과 전도명령을 위해 계획된 교회예산의 비율 등이 그렇다. 램프 윈터의 지적대로, 질은 양적 차원을 가지며 양은 질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숫자 놀음에는 관심이 없이 질적 수준에만 치중할 뿐이야’ 라는 말은 교인 수의 침체나 감소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마땅히 질적성장과 함께 양적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교회의 질적성장은 숫적성장을 자동적으로 가져오는가?

교회의 질적성장의 결과로 양적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역사적인 성령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직후의 예

루살렘 교회는 숫적성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의도적인 노력 없이도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의 숫적성장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공동으로 교회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개발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사업에 임하는 태도와 흡사하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리스도인이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가치를 분석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선한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가 제시하시는 원리와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숫적성장을 추구해야만 한다.

미국의 목회와 교육 부문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케네스 갱겔(Kenneth O. Gangel)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과 교회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금언(金言)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숫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그것이다. 만약 이 금언이 ‘복음적인 교회는 숫적성장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간단히 말해서, 숫자는 사람을 가리킨다. 만약 교회가 단지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목회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숫적성장에 관심을 쏟아야만 한다. 숫적성장이란 '질적성장'(원문에는 영적성장으로 되어 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127면).

교회는 반드시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질적성장이 있는 교회는 마땅히 양적성장이 일어나도록 전도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전도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양적성장이 있는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딤후2:2)을 택하여 훈련하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양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체로 교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적성장이 있게 될 때에 양적성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양적성장이 있는 교회는 의식적으로 질적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양적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에 대해 변종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의 양면을 이렇게 설명한다(『목회와 신학』, 1993, 7월호).

...오순절날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영적으로도 큰 부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교회의 질적성장이 있을 때 양적성장이 따름을 말하고 있다. 양적성장 그 자체는 질적성장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 질적성장에는 양적성장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질적성장이란 주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 것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과 평안함과 주를 경외함 등이다.

교회의 질적성장이 숫적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가 신약교회역사에서 보여진다. 앞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행 2:47).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전도자들이 복음의 확산 곧 숫적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더 많은 예가 있다. 구체적인 예는 뒤에 언급하게 된다.

교회의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2.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전략과 이의 현실적 적용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질적성장과 숫적성장의 관계를 현실에 나타나는 사실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러한 현

상을 먼저 살피고 성경을 보는 접근방식이 성경해석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엑서지시스’(exegesis)가 아닌 ‘아이서지시스’(eisegesis)와 같은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아이서지시스의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모든 관찰과 분석에는 선행적인 것(a priori)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적(現象的)인 것을 성경해석보다 먼저 기술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예수님의 복음전도방법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는가? 그는 무리들을 등지시고 소수의 제자훈련에만 전념하셨는가?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은 「주님의 전도계획」(*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에서 여덟 가지의 예수님의 전도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콜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번째 전략은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31면 이하).

왜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 생애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을까?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던가? 군중의 궤전에 울리는 세례 요한의 불타는 선언에 힘입어, 만일 원하시기만 했다면 주님은 손쉽게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즉각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세상을 폭풍처럼 휩쓸어 버릴 강력한 신자들의 군대를 모집하지 않으셨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대중 동원이란 좀더 매혹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주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으신 끝에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고작 초라한 제자 몇이라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즉시 주님의 전도 계획의 참된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은 군중을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도래를 알리려 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뜻이다.

콜만은 첫째 원리인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군중들의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과소평가하면서, 그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집중하신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콜만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콜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다는 점을 간과하므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이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이 글과 연관이 적으므로 설명을 줄인다.

둘째, 콜만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쏟으신 관심과 배려를 희생시키면서, 주께서 소수를 선택하심과 집중하심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다음의 인용에서 볼 수 있다(30면).

주님의 이러한 행동(대중을 상대로 사역하지 않으시는)은 때때로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던 주님의 친형제 자매들까지도 주께 이러한 정책을 버리고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내라고 다그쳤으나 주께서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요 7:2~9).

요한복음 7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도록 요구하였다. 그 때에 예수님은 콜만이 언급한대로 그들의 충고를 거절하셨다.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른 것으로 판단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도 하신다(요 7:37이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집중적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그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가 때로는 예수님의 대중적인 사역을 간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와 다수의 무리를 균

형되게 돌보셨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의 계획에 따라, 그의 사역의 대상이, 때로는 큰 무리들에게 또 때로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약 3년간의 공생애의 기간을 ‘그의 때’를 염두에 두시고 지나셨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못사람들을 가르치셨다(눅 4:15). 그의 사역의 초기에 그는 소수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다(요 1:35~51). 그는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무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고 선포하셨다. 또 큰 무리들을 상대로 하여 가르치시며,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처음 1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마 4:23).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 그의 사역이 1년여 지날 무렵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많은 기도를 하신 후 비로소 열두 사람을 부르사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다(눅 6:12~16). 그리고 그의 남은 2년여의 공생애 기간을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돌보면서, 열두 사도를 훈련하는데 보다 집중하신다.

예수님의 전략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은, 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돌보는 지혜와 방법을 보도록 하고 배우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그를 뒤이어 무리를 가르치며 양육하는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질적인 면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무리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돌보시면서 소수의 제자들의 관심을 무리에게로 돌리신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도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7~38).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집중훈련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은 무리 또는 큰 무리들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직접 돌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확장, 곧 어떤 의미에서 양적성장을 추구하신 또 다른 증거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진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루 종일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그 밤에 쉬신 후,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자기를 데리러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누가복음 12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만 2년이 지나는 때이다. 이 때에도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 수만 명(των μυριαδων, group of ten thousand)’을 직접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도 계속적으로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마 21:23, 22:33, 23:1~39 등).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또는 교회의 숫적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가셨다. 그의 이에 대한 관심은 그의 최후 명령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모든 족속과 땅 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셨다.

이상에서 본대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셨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나, 그와 함께 그의 관심이 무리들과 온 세계를 향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힘을 써야 하나, 그와 동시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팔을 열고 손을 내미는 일에 힘써야 한다.

2) 사도들의 복음전도 방법

사도들의 복음전도 방법은 오순절의 성령강림 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에서 잘 드러난다.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때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기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충만을 받은 것임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을 향하여 외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구원의 길을 듣기 원하였다. 복음을 들

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그 수가 삼천이나 되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행 2:42). 계속적으로 그들은 사랑으로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왔다.

이 사건은 교회의 양적성장 후에 있게 된 질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란 항상 양적인 성장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해 준다. 교회는 그 사회의 형편에 따라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을 택하고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통하여 숫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만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사회적인 형편에 따라 숫적인 성장이 선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사회의 형편을 잘 파악하고 교회가 숫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리하여 성경적이면서도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감안한 접촉점을 제시하므로 숫적인 성장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

3) 사도 바울의 전도방법

사도 바울은 질적성장과 숫적성장을 아울러 추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소수의 제자를 양육하였다. 그를 통하여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교회에 많은 교사들이 나타났다(행 13:1).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 디도, 실라와 같은 귀한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많은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바울은 소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만 힘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일에 힘썼다(롬 15:19). 그의 복음의 영역의 확장에 대한 관심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은 마치고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롬 15:28). 바울의 꿈은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스페인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즉 그는 교회의 숫적성장에 관심을 갖고 수고하였다.

4) 성경이 제시하는 전략의 현실적 적용

교회는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양적인 성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개발하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던기 때문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숫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 교회는 숫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세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폭발과 같은 전도와 새가족 성경공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도록 돕고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이렇게 교회원이 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즉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도록 일대 일로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는 방법이다.

(1)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담당하여야 할 사역은 단순히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한 소수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그들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다 잘 양육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은 반드시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나야 정상이다. 또한 양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질적인 성장이 보완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교회는 대중적인 집회, 예를 들면 연예인들을 불러 간증하는 것이라든가, 경배와 찬양 같은 모임을 갖는 것이라든가, 또는 부흥사를 불러 집회를 가지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을 정하고 총력전도를 하므로 더 많은 사람을 교회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임들이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인 열매를 갖게 하는데 취약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이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음악을 가지고 이 주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많은 음악가들이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오페라, 가곡, 가요 등을 작곡하고 연주를 한다. 이러한 곡들은 그 곡의 형식을 따라 특정한 계층이 호응을 하게 된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같은 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 곡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피아노 협주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더 있을 것이다. 요즈음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솔리드(이 보컬 그룹의 멤버들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가사들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생각됨)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4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음악에 대한 취향은 사람의 성장과정과 음악적인 가정환경과 교육에 따라 형성되고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좀더 수준이 높은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취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현재 각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별한 음악의 형태가 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향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설교의 형태에 대한 교회 밖의 사람들의 반응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설교를 강해식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흥미있어 하며, 신앙과 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면서 들을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설교의 양식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되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상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에 그러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선적인 유기체이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모셔들여야 한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하나의 사회 단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 26, 55).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도 질문하신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로 모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만남과 성경공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믿음과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울 때에, 그들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충성스런 교회원이 되어질 수 있다. 양적인 교회의 성장은 질적인 성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일관성있는 초신자 성경공부 및 교제와 봉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재생산하는 제자로 양성해야 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인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이다. 그의 삶의 목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도적 사명과 문화적 사명이 포함된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나 전도회, 그리고 구역모임 등을 통하여 소그룹 성경공부나 전도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재생산하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본받아 양적인 성장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고, 나오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도록 도와야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가운데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은 순환의 과정이므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은 항상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변종길, “무엇이 성경적 교회성장인가?” 「목회와 신학」, 1993. 7.
Robert E. Coleman, 홍성철 옮김, 「주님의 전도계획」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Elliot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9.
Kenneth O. Gangel,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70.
C. Peter Wagner, “교회성장운동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견해” 「목회와 신학」, 1990. 2. pp.76~82.